산업통상자원부	보 도 자 료	보다 나은 정부
http://www.motie.go.kr		

2019년 12월 23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22일(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12.20.(금)	담당부서	전력시장과
담당과장	이옥헌 과장(044-203-5170)	담 당 자	이채원 서기관(044-203-5171)

DR시장 개편, 자발적 참여기회 확대 및 의무절전 부담 최소화

-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통해 '20.1월 중 시행 -

□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한국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는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를 **"자발적 절전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업체 의견수렴*, 전기위원회 의결(12.20) 등을 거쳐 **'2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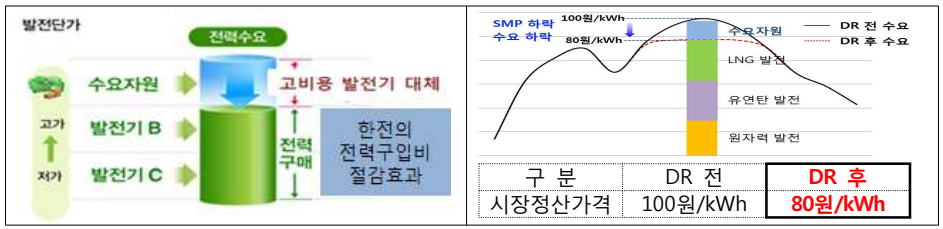
* '19.8월, 10월 수요관리사업자 대상 DR 제도 개선안 설명회 旣 개최

○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발전기보다 경제적**이며 **해외 주요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중***이다.

* 미, 영, 독, 호 등에서 피크수요 관리, 단기 수급불균형 대응을 위해 DR 운영중

○ 우리나라는 '14.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중이다.

< 수요반응자원의 경제적 효과 예시 >



□ 금번 제도개편 배경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하고, 반면에 **의무절전 발령은 수급비상시로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경제성 DR)하고 있음

□ 금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 첫째,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먼저,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었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됨

–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이다.

○ 둘째,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수급비상시**(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 수급 준비단계)로 **한정**하여 **업체의 의무부담을 줄인다.**

< 현행 수요반응자원 거래시장 제도 및 개선사항 >

현행		개선 주요 사항		
		개선 후	참여방법	시행 요건
자발	경제성 DR	경제성 DR (유지)	자발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미세먼지 DR (신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피크수요 DR (신설)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시
의무	의무절전 (신뢰성DR)	의무수요감축 (유지)	의무	예비력 500만kW 미만 예상시

○ 셋째, 참여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을 전력사용 감축**실적**(의무절전량,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값)**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DR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 등록용량에 따른 기본정산금, 절전실적에 따른 실적정산금을 지급받고 있음('18년 기준 기본급 1,697억원, 실적급 152억원)

□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금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하여 '20.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20.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이채원 서기관(☎ 044-203-51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